

DBpia

‘世紀의 발견’, 『花郎世紀』

Hwarangsegi(『花郎世紀』), the Discovery of the Century

저자 (Authors)	金台植 Kim Tae-Shi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6 , 2010.12, 29-61 (33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6 , 2010.12, 29-61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78030
APA Style	金台植 (2010). ‘世紀의 발견’, 『花郎世紀』. 한국고대사탐구, 6, 29-6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4: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世紀의 발견’, 『花郎世紀』

金台植*

- I. ‘怪物’의 출현
- II. 破天荒의 摩腹子
- III. 『화랑세기』와 刹柱本記, 龍樹와 龍春
- IV. 吉禮의 祭場 鮑石祠
- V. “百年大旱의 단비”

【국문초록】

신라 景文王 시대에 황룡사 구층목탑을 수리한 내용을 摘記한 그 『刹柱本記』에 의하면, 신라 善德女王 14년(645)에 시작해 이듬해에 완료한 목탑 창건을 총감독한 이는 伊干 龍樹다. 1989년에 홀연히 출현한 『화랑세기』의 眞僞 감정에 나선 어떤 이는 이를 근거로 『花郎世紀』가 후대 누군가가 신라인 金大問을 가탁해 지어낸 僞書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화랑세기』에 의하면, 용수가 목탑 건립 총감독을 했다는 645~646년 무렵에는 이미 죽고 없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찰주본기」를 주목한 이런 접근 방식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 그 절대적인 판단기준을 오로지 「찰주본기」에만 두고, 그것이 말하는 것은 오직 史實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화랑세기』의 관련 내용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 『화랑세기』가 위서가 아니라 眞書임을 여실히 밝혀준다. 『화랑세기』 출현 이전에는 「찰주본기」에 보이는 용수를 일명 龍春이라고도 했다고 알았다. 하지만 『화랑세기』를 통해 두 가지 표기는 각기 다른 인물, 즉, 형제로 판명이 났다. 형제 중에서도 동생인 용춘은 형

* 연합뉴스 학술전문기자

인 용수를 생물학적인 아버지로 하는 양아들 金春秋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사후에 文興大王으로 추봉 받았고, 더구나 文武王 시대에는 宗廟에 모셔져 왕실의 제사를 받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후대 신라인들이 생전의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찰주본기」에서 伊干 용수가 監君이었다고 기술한 것은 용수와 용춘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화랑세기』를 통해 다른 인물로 드러난 용수와 용춘이 서로 다른 인물임이 「찰주본기」를 통해 재삼 확인된 것이다. 더 나아가 『화랑세기』를 통해 645~645년 무렵에 황룡사 구층목탑 수리 총감독이 용수라는 기록이 실은 龍春의 오류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찰주본기」가 史實을 반영한 기록이 아니라 誤謬를 담았으며, 그런 오류가 다름 아닌 『화랑세기』를 통해 교정된 것이다.

鮑石亭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우리는 『화랑세기』 진위론을 감정할 수 있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포석정은 그 역사의 시작이 적어도 眞平王 이전이며, 그 주된 기능은 吉禮의 場이자, 화랑의 聖地였다. 이러한 면모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나친 『삼국유사』의 에피소드 ‘貧女養母’의 한 대목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 眞聖女王 시대 화랑 우두머리인 孝宗郎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데리고 南山 鮑石亭에 행차했다. 왜 그가 포석정에 행차했는지는 오직 『화랑세기』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화랑세기』야말로 진서임을 확인해준다.

『화랑세기』가 僞作임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좌절하고 水泡로 돌아갔다. 그것이 위작임을 주장한 어떤 논자가 쓴 표현을 그대로 빌리건대, 『화랑세기』는 ‘百年大루의 단비’이며 ‘世紀의 발견’이다.

주제어 : 화랑세기,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 용수, 용춘, 포석정

I. ‘怪物’의 출현

작금 인기리에 방영한 MBC 사극 『선덕여왕』은 『花郎世紀』라는 怪物의 출현 없이는 태동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지는 않는다. 『선덕여왕』은 곳곳에서 『화랑세기』를 파괴한다. 시간

을 비틀고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지만 드라마는 언제나 『화랑세기』로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선덕여왕』에 『화랑세기』는 족쇄다.

『화랑세기』는 1989년에 홀연히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왜 홀연이라 하는가? 이름만 전해지다가, 혹은 그 편린 중 서너 조각만이 다른 문헌에 인용되어 희미하게 전해지다가 갑자기 그 전모에 가까운 모습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홀연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낳는다.

逸書의 출현. 이런 사건은 늘 『선덕여왕』과 같은 대하드라마가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리듯이 『화랑세기』 또한 출현과 더불어 거센 眞僞 논쟁에 휘말렸다. 이 논쟁은 그것이 출현한 지 21년이 지난 2010년 오늘까지도 해결의 기미는 좀체 없다.

『화랑세기』라는 말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도 더러 보이거니와, 특히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대문의 저술 중 『화랑세기』가 김부식이 살았던 당대에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도 남아 있던 그 『화랑세기』가 이후 어느 시점엔가 사라졌다가 그것을 가장한 『화랑세기』가 다시 출현했다는데, 이것이 어찌 ‘사건’이 되지 않겠으며 ‘괴물’이지 않겠는가?

II. 破天荒의 摩腹子

MBC에서 『화랑세기』를 주된 텍스트로 삼아 『선덕여왕』을 제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필자가 회원으로 몸담은 신라사학회로 드라마 제작진이 ‘학술자문’이 들어왔을 때, 필자는 저 극심한 近親婚 신라사회를 공중과 방송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가 몹시도 궁금했다. 사실 신라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을 빼 놓고는 아무리 근친이라도 혼인을 할 수 있는 근친혼 사회라는 점은 『화랑

세기』 출현 이전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화랑세기』는 이런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근친혼 사회임을 보여준다. 근친 혼뿐만 아니라 언뜻 보기에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내나 첩도 주고받는 사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불러낸다.

이런 보기로 『화랑세기』 출현 이전에는 철석같이 한 사람에 대한 다른 표기로 알았던 龍樹-龍春 형제가 있다. 『화랑세기』 출현을 통해 기존 史書에 보이는 두 표기가 동일한 사람에 대한 異稱이 아니라 실은 각기 다른 사람으로서 형제임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화랑세기』 진위를 판별하는 데도 매우 막중한 의미를 갖는다. 『화랑세기』에서 두 사람으로 갈라놓았다고 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龍樹-龍春이 두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화랑세기』에 이 둘을 다른 사람으로 기술했는데, 이를 보고 다시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두 표기를 보니, 이들 텍스트 자체에서도 이미 둘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중대하다.¹⁾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화랑세기』는 형인 용수에게 본부인은 진평왕의 딸로서 善德의 언니인 天明公主라 하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金春秋라 했거니와, 용수가 먼저 죽으면서 그 아내인 천명과 아들인 춘추를 동생인 용춘에게 맡겼다고 했으니 이 점이 비상하기만 하다. 이런 사건 전개를 정작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용수를 일찍 죽여 퇴장케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텔런트 박예진이扮한 천명공주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퇴출하고 말았다. 천명공주는 퇴출 이전, 과부가 된 몸으로 춘추를 키우면서 김유신을 흠모하는 여인으로 설정했거니와, 그러면서 같은 남자

1) 龍樹-龍春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래, 「삼국사기와 필사본 화랑세기」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6; 이종욱, 「화랑세기를 통하여 본 신라 화랑도의 기원과 설치」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6;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참조.

를 마음에 품은 선덕과 묘한 긴장 관계로 설정하기도 했다.

필자가 정작으로 궁금했던 점은 이 용수-용춘 문제를 드라마가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였지만, 예상대로 이를 『화랑세기』에 기초해 끌고 갈 수는 없었다. 하기가야 21세기 白晝에 형이 죽어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는 구성을 용납할 수는 없었으리라. 모르긴 해도, 드라마 제작진은 용수-용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아무리 우리가 신라사회를 이해하려 한다 해도 다름 아닌 현대의 도덕이 그것을 가로막는 일대 장애물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현대의 도덕윤리, 그것이 『화랑세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이런 현대의 윤리 관념은 의외로 역사학,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천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한반도 역사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強拍으로 작동하는 듯하니, 그것이 『화랑세기』의 진위를 판별하는 가장 큰 준거점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필자로서는 기이하기만 하다. 僞書論에 선 어떤 논자는 『화랑세기』에 보이는 摩腹子 같은 제도를 보고는 ‘破天荒’이라고 평가했는가 하면,²⁾ 또 다른 위서론자는 이 마복자를 포함해 “『화랑세기』가 보여주는 특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사회를 好色적으로 그리고 있다”³⁾고 하면서, 그 증거로 色供과 私通, 同性愛, 蒸 등을 거론했다. 이들의 논점에 의하면 이런 성향, 혹은 내용을 담았기에 『화랑세기』가 후대 누군가가 金大問을 假託해 만들어낸 텍스트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의아하기만 점은 그들이 경악하면서, 한편으로는 實在라고도 믿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나아가 그들이 그토록 『삼국사기』·『삼국유사』만큼이나 자주 인용하는 『日本書

2) 노태돈, 「筆寫本 花郎世紀의 史料의 價値」, 『歷史學報』147, 1995, 348쪽.

3) 김기홍, 「필사본 花郎世紀와 관련된 기초적 문제들」, 『建大史學』10, 2003, 277쪽.

紀』, 혹은 산더미 같은 중국의 문헌에도 심심찮게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들이 쉽사리 의혹의 눈초리를 던진 남성 간 동성애 문제를 먼저 본다.

『화랑세기』에는 이런 관계를 직접 지칭하는 龍陽 혹은 龍陽臣이라는 표현 외에도, 嬖 혹은 嬖臣 혹은 嬖兒, 그에 더불어 媵(臣)과 같은 말이 여러 번 보이니, 남성 간 관계에서 이 말은 예외 없이 이런 관계에 있는 남성들이 동성애 관계임을 암시하거나 명시한다. 한데 이런 말이나 표현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도 더러 보이는가 하면, 더구나 이 때 그들의 관계는 동성애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는 그런 사례 중 하나로 『고려사절요』 권2, 穆宗 宣讓大王 己酉 12年(1009)條에 보이는 기록 하나만을 들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왕의 嬖臣으로 知銀臺事左司郎中 劉忠正, 閤門舍人 庾行簡 등이 있었다 하면서 이 중 유행간에 대해서는 “얼굴이 아름다우므로 왕이 그를 사랑하여 男色으로 총애했다”고 한다. 이런 목종의 사례를 비교하면 남색의 대표 주자처럼 인식된 恭愍王이 결코 당시로서는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중국사에서도 동성애에 빠진 인물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으니, 漢 武帝 劉徹과 樂士 李延年の 관계는 널리 알려진 고사이며, 『漢書』 媵幸傳은 아예 前漢시대 帝王의 남색 행각 열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晏子春秋』에는 齊 景公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의 신하가 왕을 탐냈다는 이야기도 수록될 정도다.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 특히 나라시대에는 승려 집단에서 男色은 꽤나 광범위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런 내용도 아니다.⁴⁾ 이런 동성애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접근을 통해 볼 때, 『화랑세기』에 나타난 동성애가 결코 평지돌출이거나 파천황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4) 데루오카 야스타카 저, 정형 역, 『일본인의 사랑과 성』, 소화, 2001.

『화랑세기』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마복자라는 관행도 그런 말 자체가 이곳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분명한 듯하지만, 그렇다고 이에서 보이는 그런 제도는 통시적·공시적 접근을 시도하면 결코 파천황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필자가 보기엔 한국 고대사학계에서 『일본서기』의 신인도, 혹은 인용도를 높인 결정적인 사건은 1971년 공주 武寧王陵 발견·발굴인 듯하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그의 墓券에 의하면, 『삼국사기』에서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무령왕의 출생 연대가 『일본서기』에 보이는 그것과 흡사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또한 묘권과 『일본서기』가 동일하게 ‘斯麻’인 데 비해 『삼국사기』는 ‘斯摩’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 묘권의 출현은 『일본서기』를 새삼 돌아보게 만들었으니, 이 자리에서는 무령왕 출생과 관련한 기록만을 적출하여 그것을 『화랑세기』와 비교하기로 한다.

묘권에 의하면 寧東大將軍 百濟 斯麻王은 나이 62세 때인 癸酉年(523) 五月 丙戌朔 七日에 崩했다 했으니, 이로써 역산하면 그의 출생 연대는 461년이 된다. 다만, 이에서 조심할 대목은 이 무렵 나이는 이른바 滿 나이가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둘 때 그의 정확한 출생년은 462년이 된다.

한데 『일본서기』 雄略紀 5년 辛丑조에는 사마의 출생담이 수록됐거니와, 이에 의하면 사마는 이 해 6月 丙戌朔에 筑紫의 各羅島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묘권이 말하는 그의 享年을 역산한 461년과 비록 1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써 『일본서기』가 한편에서는 선불리 버릴 수 없는 기록임이 명확해졌다.

『일본서기』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와 정확히 연관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언급한 그의 출생담이다. 이 웅략기 5년조 그의 탄생담에 의하면, 조금은 기이하게도 사마는 아버지가 둘이다. 생물학적 아버지 (Biological Father)는 엄연히 백제 加須利君, 즉 蓋鹵王이지만 그를 출산할

당시 그의 어머니는 軍君, 즉 昆支의 아내였으므로 곧지는 養父가 되는 셈이다. 한테 곧지는 개로왕의 동생이다. 더욱 기이하기만 한 대목은 개로왕이 자기 씨를 배어 만삭이 되고 산달을 가까이 둔 婦를 동생인 곧지에게 내렸다는 사실이다. 개로왕은 곧지를 일본에 파견하면서 당부하기를 “나의 孕婦는 産月이 가까워졌으나 만약 (일본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배에 태워 속히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때가 이 해 4월 7일이었다. 이런 몸으로 원래 남편인 개로왕의 씨를 밴 여인은 시동생이라 할 수 있는 곧지의 부인이 되어 함께 일본으로 가다가 그 해 6월 1일 筑紫의 各羅島에 이르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사마라고 한다.

무령왕릉 묘권을 통해 『일본서기』는 새롭게 사료로서 부각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로왕이 자기 아이를 밴 婦를 동생에게 내렸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만한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사마왕 출생 연도가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이 난 마당에 그것을 기록한 같은 대목에 보이는 다른 출생담은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만삭인 자기 아내를 동생에게 내려주었다는 언급도 지극히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 혹은 이런 기록이 채록된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습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야말로 파천황이다. 이와 같은 습속이 고대 일본사회 내부에서는 물론이요, 인근 고대 한국과 중국에서도 쉽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필자가 지금까지 훑어본 바로는 그렇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화랑세기』가 출현하고, 그에서 마복자 제도가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파천황의 영역에서 건져내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 마복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급이 있었거니와, 이종욱의 견해를 빌린다면 다음과 같다.

“신라의 독특한 제도로 임신을 한 여자가 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후 낳은 아들을 마복자라고 한다. 높은 지위의 세력들은 정치적인 지지자를 갖게 되고 마복자는 후원자를 갖게 되는 제도이다. 왕들도 마복자를 가졌고 화랑들이나 낭두들도 마복자를 가졌다.”⁵⁾

『화랑세기』가 말하는 마복자 제도의 백제식 버전이 개로왕과 곤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는가? 여담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개로왕이 동생 곤지에게 넘겨주었다는 만삭의 婦를 正妃로 보지 않는다. 틀림없이 後宮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곤지에게도 이 여인은 正婦인이 아니라 분명히 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마는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개로왕의 庶子일 것이다. 이런 서자가 나중에 동성왕을 대신해 권력을 장악하고 대권까지 거머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專考를 약속해 본다.

Ⅲ. 『화랑세기』와 剡柱本記, 龍樹와 龍春

皇龍寺 九層木塔 「剡柱本記」를 오로지, 혹은 그것을 주요한 전거로 삼은 직업적 학문종사자의 글은 많다. 나아가 「찰주본기」가 말하는 황룡사 목탑 창건에 대한 緣起와 창건 과정 또한 『삼국유사』가 저록한 그것은 비록 세부에서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大略이 일치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이에서 필자 또한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찰주본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할 때는 대체로 前者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더욱 신뢰를 보내는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신라시대에 著錄한 증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신라 사람들이 기록했으므로 후대에 저록된 『삼

5) 이종욱 역주해(원문교감), 『화랑세기』(소나무, 1999) 중 부록 「『화랑세기』 용어 해설」 ‘마복자’ 항(397쪽).

국유사』의 그것보다는 더욱 신뢰감이 간다는 건 어찌면 조건반사일 수 있다. 하지만 「찰주본기」가 신라시대 기록물이라고 해서 그 기록의 정확성까지 모조리 담보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편찬연대의 멀고 짧음을 기준으로 그 사실성까지 판단한다면, 백제 威德王(昌王) 당대에 王興寺 木塔을 세우면서 그들이 남긴 기록, 즉, 숭례 2개를 묻었더니 저절로 세 개가 되었다는 기록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당대의 기록이므로 사실이어야만 한다.

「찰주본기」에 보이는 내용 중에 『화랑세기』와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아가 그것이 혹여라도 『화랑세기』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다면, 어느 하나를 절대적 사실에 입각한 正典(Cannon)이라고 고정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하나를 판별할 수는 없다. 그가 믿는 정전이 진실을 호도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나아가 편찬연대의 멀고 짧음이 그 기록의 정확성 우열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 심사자는 당연히 비교대상인 둘을 각기 합당한 위치에 놓고 저울질해야 하지 않겠는가?

「찰주본기」와 비교대상인 『화랑세기』만 해도, 이 『화랑세기』가 정말로 김대문의 저작을 著錄한 것이라면, 그것을 원문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외려 『화랑세기』가 景文王 12년(872)에 완성된 「찰주본기」보다도 무려 160년 이상을 앞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찰주본기」와 『화랑세기』의 관련 내용을 근거로 『화랑세기』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고 여긴 어떤 논자는 「찰주본기」에는 龍樹가 善德王 14년에도 살아 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화랑세기』에 문제가 있으며 용수와 용춘을 형제라 한 것은 더욱 더 믿을 수 없다⁶⁾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이 논자는 황룡사 구층목탑 重修가 왕실과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인 大役事였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왕실과 국가의 重且大한 사업을 마

6) 권덕영, 「『화랑세기』 진위논쟁 10년」 『한국학보』99, 2000.

무리하면서 기록한 「찰주본기」의 내용은 그 어떤 기록보다 정확했을 것이다”⁷⁾고 덧붙인다. 이런 언급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에 앞서 벌써 이런 입론은 출발 자체가 결정적인 하자를 안았음을 지적할 수 있으니, 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찰주본기」가 말하는 황룡사 창건에 얽힌 기록이 전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로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이 논자가 「찰주본기」를 절대 근거로 삼아 『화랑세기』 위서론을 주장할 그 당시에도 「찰주본기」의 그것이 오로지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만을 적었다는 증거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찰주본기」에 의하면 황룡사 구층목탑은 善宗郎이라는 진골 귀인이 세웠다고 하거니와 이런 그가 어려서 살생을 좋아해 매를 놓아 꿩을 잡았는데, 그 꿩이 눈물을 흘리며 울자 이에 감동하여 마음을 일으켜 출가하여 도에 들어갈 것을 청하고 法號를 慈藏이라 했다고 하거니와, 꿩이 눈물을 흘렸겠는가? 혹시 신라시대 꿩은 눈물을 흘리는 종자가 있었는데 후대 어느 때인가 멸종해 버렸는지 모르지만, 과학적 합리주의에 투철한 필자가 보기에는 볼 짝 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텍스트를 절대 근거로 삼아 그 비교 대상을 가짜라고 몰아칠 수 있는가?

이 「찰주본기」에는 중국 유학을 하고 돌아온 자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선덕왕 14년 을사년(645)에 처음 건립해 시작해 4월...에 刹柱를 세우고 이듬해에 모두 마쳤다고 하면서 이 건축 공사에 伊干 龍樹를 監君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으니 감군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사 총감독이다. 이것이 과연 어떤 논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랑세기』가 위서인 근거가 되는가? 그의 주장, 즉, 이를 볼 때 용수와 龍春은 한 사람이며, 『화랑세기』에 의하면 목탑 완공 무렵에는 이미 죽고 있어야 할 용수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런 내용을 담은 『화랑세기』는 위서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7) 권덕영, 위의 논문, 2000, 38쪽.

가?

첫째,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위서가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필자를 포함해 이종욱과 이강래도 논증했듯이, 용수와 용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자체에서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찰주본기」에 645년 황룡사 목탑 창건 당시 伊干 용수를 감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화랑세기』가 가짜라는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그것은 같은 「찰주본기」의 기록이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눈물을 안 흘리는 꿩이 눈물을 흘린다고까지 한 「찰주본기」가 용수에 대한 기록이 오류일 수 있다는 상정은 왜 하지 못하는가?

나아가 「찰주본기」 그 자체의 분석을 통해서도 이간 용수는 용춘과 다른 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明明하고도 白白하게 드러난다. 어떤 근거에서 이같이 담대한 주장을 제기하는가?

『삼국사기』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즉위년(654)조에 이르기를, 이 해 여름 4월에 왕의 죽은 아버지를 文興大王에 追封했다 한다. 나아가 『삼국유사』 王曆편 신라 제29대 太宗武烈王조에서는 그의 아버지를 眞智王의 아들인 龍春 卓文興葛文王이라 했다. 하지만 같은 紀異편 太宗春秋公조에서는 김춘추가 추봉된 文興大王의 아들이라 해서 결국 김춘추가 즉위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文興이라는 시호를 지어 바친 것만은 분명함을 밝혀준다. 더불어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687)조에 이르기를, 이 해 여름 4월에 大臣을 祖廟에 보내 제사를 고했다고 하면서 그 祭文을 수록했거니와, 이에서 신문왕은 종묘 영전에서 “왕 아무개는 머리 숙여 再拜하고 삼가 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 영전에 아뢰입니다”고 했다고 한다.

묻는다. 그가 용수건 용춘이건, 나아가 그가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미 문흥대왕에 추봉된 마당에 景文王이 비록 방계이건 하지만 엄연히 선대 왕실 계보에 속하고 列聖祖에 편입된 그를 이름으로써 부를

수 있는가? 용수와 용춘이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표기라면, 이미 경문왕 당시에 그의 위상은 용수 혹은 용춘이 아니라 엄연히 문흥대왕이어야 할진대 어찌하여 「찰주본기」에는 ‘이간 용수’라고 등장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용수와 용춘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은 “문흥대왕이 이간이었을 적에 감군을 맡아” 정도로 표현해야 한다. 「찰주본기」가 완성된 무렵 신라 말기에 왕은 생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은 뒤에 尊號로써 바친 諡號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이 시대 다른 금석문에서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으니, 예컨대 진성여왕 4년(890) 이후 언제인가 세운 「聖住寺 郎慧和尚 白月葆光塔碑」에 법사를 일러 “俗姓은 金氏이니 태종무열왕이 8대조이시다”고 했으니, 어디에 김춘추라는 이름을 썼는가? 나아가 애장왕 시대(800~808)에 건립했다는 「高仙寺 誓幢和上碑」에도 “文武大王이 나라를 다스림에 일찍이 저절로 이루어짐에 응하여 나라가 평안하였으며”라고 해서 이에서도 시호가 보이지 결코 金法敏이라 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실례는 생략하거니와,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대왕에 추봉된 사람은 결코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避諱 시스템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만 있어도 정말로 용수와 용춘이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찰주본기」에 ‘이간 용수’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찰주본기」에서 보무당당하게 ‘이간 용수’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낸다.

“龍樹는 결코 大王에 추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용수는 명백히 용춘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용수가 대왕에 추봉되지 않았으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늘상 ‘一云’ 혹은 ‘一作’과 같은 말을 연결고리로 삼아 그와 매양 나란히 언급되는 용춘이야말로 바로 문흥대왕

임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찰주본기」를 통한 용수-용춘 문제에 대한 구명이 『화랑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화랑세기』 전체를 통괄하면 둘은 진지왕의 아들이자 知道를 어머니로 하는 同腹 형제다. 용수가 형이며, 용춘은 동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벌써 『화랑세기』 자체에 용수의 出自를 헛갈리니, 13세 龍春公 傳에 이르기를 “公(용춘)의 형 용수 殿君은 銅太子(銅輪)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金太子(金輪)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면서 『殿君列記』를 인용해서는 “公은 곧 용수 葛文王의 동생이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그러고는 본문에서는 시종일관해서 용수와 용춘을 同父同母 형제로 간주했다. 나아가 같은 용춘공 전에 의하면,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후맥락으로 미뤄 용수가 적어도 용춘보다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전에 먼저 죽어 아내 천명공주와 아들 춘추를 용춘에게 맡겼다고 기술한다. 이에 용춘은 춘추를 아들로 삼았다고 했다.

춘추의 生父에 대해서는 같은 『화랑세기』 다른 곳에서도 혼돈스런 구석이 있으니, 春秋公 傳 世系에서는 “아버지는 용춘공이니 金輪王의 아들이다”고 해서 마치 생물학적 아버지가 용춘인 것처럼 기술했다. 이를 종합한다면 춘추에게 용수는 생부이며 용춘은 叔父로서 養父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화랑세기』 자체에서 용수의 父系를 金輪과 銅輪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춘추 또한 생부가 용수와 용춘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런 혼란을 정리할 수는 없을까? 나는 춘추의 親父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춘추가 용춘을 생부로 여기지 않았냐 하는 쪽에 강한 심증을 두고 싶다. 그 까닭은 용춘공 전에 나와 있듯이 용춘이 太和 원년(647) 8월에 壽 70으로 薨하니 太宗이 즉위하여 그를 “葛文王에 추존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양부가 생부 같다고 해도 생부를 제쳐두고 양부만을 갈문왕 혹은 대왕으로 추존하는 일이 있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화랑세기』에는 그를 갈문왕으로 추봉하면서 바친 諡號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관련 기록을 검토할 때, 文興이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화랑세기』에서는 그를 갈문왕에 추봉했다 하거니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文興)大王이라 해서 차이를 보인다. 갈문왕과 대왕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필사 과정에서 현존 『화랑세기』가 모종의 錯亂을 빚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 신문왕조에 보이는 宗廟 祭文을 볼 적에 적어도 신문왕 시대에 용춘은 문흥대왕으로 존칭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용수-용춘을 둘러싼 『화랑세기』 자체의 복잡다단한 혼란상이랄까 하는 양상을 볼 때, 우리는 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그들에 관한 기록에서 왜 반드시 두 표기가 ‘一作’이나 ‘一云’과 같은 말로써 매양 붙어 다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해명할 수도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대로 『화랑세기』가 진본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화랑세기』가 편찬되던 시점에 벌써 용수와 용춘은 서로의 행적이 오버랩되어서 누가 누구인지를 헛갈리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혼란상이 결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까지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시금 지적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용수와 용춘을 결코 같은 사람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여전히 둘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근현대 역사학자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화랑세기』가 홀연히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금까지 고찰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찰주본기」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추단을 내리게 된다.

645~646년 황룡사 목탑 완공 때 監君이 伊干 龍樹라는 언급은 착오 입이 명백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화랑세기』에서는 용춘이 죽은 시점을 太和 元年(647) 8월이라고 못 박기는 했지만, 그의 형 용수가 어느 시점에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할 수 있다. 따라서 황룡사 목탑이 기공되고 완공된 645~646년 무렵에는 용수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전후 문맥으로 보아 용수는 용춘보다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전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로 볼 때 황룡사 목탑 공사에 총감독을 맡은 이는 용수가 아니라 용춘이었다고 보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왜 「찰주본기」는 용수와 용춘을 헛갈렸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화랑세기』 편찬 단계에서 벌써 용수와 용춘은 행적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착안하면, 이런 錯簡이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어느 날 느닷없이 주어진 『화랑세기』를 통해 어느 논자의 지적처럼 신라 당대의 기록이면서 왕실과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어떤 기록보다 정확성을 기렸을 「찰주본기」의 오류, 혹은 오류 가능성까지 교정하게 된다. 그래서 『화랑세기』는 ‘괴물’이다.

IV. 吉禮의 祭場 鮑石祠

『삼국유사』는 卷5, 孝善9가 마지막이며, 다시 그에서 ‘貧女養母’라는 題下에 수록된 이야기가 大尾를 장식한다. 이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貧寒한 처녀가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孝女談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을 一擧에 그런 곤궁에서 벗어나게 한 이는 孝宗郎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은 貧女도 아니며, 더더구나 그런 빈녀에게서 奉養을 받는 어미도 아니며, 바로 효종랑이라 할만하다.

孝宗郎이 南山 砲石亭(三花述이라고도 한다.原註)에서 遊하매 그의 門客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니 오직 두 문객만이 늦게 오는 이가 있었다. 郎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芬皇寺 동쪽 마을에 여자가 있으니 나이는 스무 살 안팎인데 눈먼 어미를 껴안고 서로 소리쳐 울고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그 연유를 물은즉, 그 여자 집이 가난해 결식하여 그 어미를 몇 해 동안 봉양하다가 마침 흉년을 만나 집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 남의 집에 몸을 팔아 곡식 삼십 石을 얻어 큰 부잣집에 몸을 맡겨 일하면서 날이 저물면 쌀을 싸 집에 와서 밥을 짓고 같이 자고, 새벽이면 그 부잣집에 가서 일하기를 여러 날 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미가 “전날 거친 음식은 마음이 편하더니, 요즘 좋은 음식은 속을 찌르는 듯해 마음이 편치 않으니 어찌된 일이나?”고 하니 이에 딸이 사실을 실토하니 어미가 통곡하매 딸이 단지 음식 봉양할 줄만 알고 마음을 편히 해 드리지 못함을 한탄하며 서로 붙잡고 울므로 이런 장면을 보느라 늦었다고 했다. 郎이 듣고는 측은한 마음에 곡식 100곡을 보내니 郎의 양친 또한 의복을 보내는가 하면 낭의 친 명에 이르는 무리가 조 천 石을 거두어 주었다. 이 일이 王에게 알려지자 그 때 진성왕이 곡식 오백 石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병졸을 보내 집을 호위하여 도둑을 막게 하는 한편, 그 坊에다가 旌門을 세워 孝養里라고 했다. 나중에 그 집을 회사해 절을 세우고 兩尊寺라고 했다.⁸⁾

이 이야기에서 효종량이라는 인물은 眞聖女王 시대에 활약했으며, 천 명에 이르는 門客을 거느렸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다. 다만, 이에서 말하는 문객 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 실제 천 명이라는

8) 孝宗郎遊南山砲石亭[或云三花述]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此女家貧 乞畝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嗅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吻 膈肝若刺 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郎聞之潛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亦送衣袴一囊 郎之千徒 玄租一千石遺之 事達震聽 時眞聖王賜穀五百石 并宅一廬 卒徙衛其家 以徹劫掠 旌其坊爲孝養之里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그가 거느렸다는 문객, 혹은 千徒의 실체는 이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니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 실로 다행히도 이 ‘貧女養母’와 같은 골격을 이야기함이 분명한 史話가 『삼국사기』권48, 열전8, 孝女知恩전에 보인다. 이 열전과 빈녀양모를 비교하면, 『삼국유사』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한 문제의 효녀가 실은 韓歧部 百姓 連權의 딸 知恩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문제의 사건 당시 이 효녀가 스무 살 안팎이라 했지만 『삼국사기』에는 지은이 32세 노처녀로 등장한다. 더불어 『삼국사기』에는 효녀 지은에 얽힌 일을 효종왕이 出遊하러 나갔다가 직접 母女가 부둥켜안은 채 우는 장면을 목도했다 해서 효종왕이 南山 砲石亭에 遊하러 나갔다가 문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어 알게 됐다는 『삼국유사』 관련 기술과는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 孝宗이라는 인물에 대해 『삼국사기』는 같은 열전에서 당시의 제3재상인 舒發翰 仁慶의 아들로서 어릴 적 이름은 化達이며, 大王(진성여왕)이 지은 모녀를 도운 효종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려 대왕의 兄(오빠) 憲康王의 딸과 혼인케 했다고 덧붙인다. 지은과 효종에 얽힌 사건을 전해들은 진성여왕이 효종을 가리켜 “비록 어린 나이지만 문득 老成함을 보는 듯하다(雖當幼齒 便見老成)”고 했으므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도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효종은 다른 곳에서도 행적을 남기니,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孝恭王 6년(902) 봄 3월에 의하면, 이 때 서리가 내리니 대아찬 효종을 侍中으로 삼았다고 하며, 『삼국유사』 王曆篇 신라 제56대 敬順王조에 의하면 왕의 아버지가 바로 효종 伊干으로 (죽고 아들이 즉위한 뒤에는) 神興 大王에 추봉됐다고 한다. 나아가 이 왕력 편에 의하면, 『삼국사기』 知恩열전에서 진성여왕이 효종에게 시집보낸 헌강왕의 딸은 桂娥大后로 드러난다. 효종이 거느린 문객은 『삼국사기』 知恩열전에서 효종왕의 善行에 부

응한 “郎徒 수 천인이 각기 조 1섬씩을 각출해 (지은에게) 주었다(郎徒幾千人 各出粟一石爲贈)”고 하므로, 바로 화랑의 무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에서 말하는 ‘낭도’가 화랑이 이끈 무리라는 뜻과 함께 (孝宗) 郎의 무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경우건 이런 문객, 혹은 徒를 거느린 효종이 바로 그런 무리를 이끈 우두머리 화랑이었을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삼국유사』 빈녀양모로 다시 돌아가 그 첫 대목에 보이는 “효종랑이 南山 砲石亭(三花述이라고도 한다-原註)에서 遊하매”라는 구절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원문 “孝宗郎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에서 포석정과 연결되어 分註에 보이는 三花述에 대한 실체가 못내 궁금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或云’은 ‘포석정=삼화술’, 즉, 포석정의 다른 이름이 삼화술이 아니라, ‘포석정≠삼화술’, 곧, 효종랑이 遊한 곳은 남산 포석정이라고 하지만, 그 장소가 아니라 삼화술이라는 다른 기록(혹은 주장)도 있다는 뜻을 내포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장소인 포석정과 삼화술을 연결하는 고리가 무엇인지 못내 궁금하지만, 어쨌든 『화랑세기』와 관련해 우리는 낭도, 혹은 문객(수)천 명을 거느린 화랑의 우두머리 효종이 하필 포석정으로 가서 遊했을까를 이제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화랑세기』 출현 이전에는 필자가 장담하거니와 어느 누구도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 출현 이전에는 그냥 虛心하게 효종랑이 門徒를 이끌고 포석정으로 가서 노닐었을 것이라고 文面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 하지만 『화랑세기』가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왜 하고 많은 곳 중에서 효종랑이 이끄는 화랑 무리가 포석정으로 遊하러 갔는지를 ‘비로소’ 해명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화랑세기』에는 鮑石祠 혹은 그 약칭임이 분명한 鮑祠가 등장하거니와, 이것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지에서 신라 멸망기에 관한 기술

몇 군데서 보이는 포석정을 지칭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나아가 『화랑세기』에 의하면, 그것이 활용되는 주된 용도가 吉禮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것이 등장하는 배경과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는 상세한 고찰을 가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결혼식이 열린 장소였다. 둘째, 그렇다고 아무나 결혼했던 것은 아니고 적어도 진골 이상 되는 고위신분에만 허용됐다. 셋째, 중요한 인물의 畫像이 모셔진 곳이기도 했다. 넷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鮑石祠가 神宮과는 마치 세트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화랑세기』의 시대보다 수백 년 지난 뒤에 효종왕이 왜 문객, 혹은 낭도(수)천 명을 이끌고 남산 포석정으로 遊했는지를 비로소 해명하게 된다. 요컨대 포석정은 화랑 집단에는 聖地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확실히 해 둘 점은 포석사 혹은 포석정이 창건된 시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화랑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진평왕 재위 시대에 文弩가 뼈이 없던 允宮이라는 여성과 길례를 올린 장면이라는 점이니, 이로써 보건대 鮑祠는 아무리 늦어도 진평왕 시대에는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문노전에 의하면, 문노가 洪濟 5년(576) 10월에 知道皇后의 명으로 國仙이 되고 允宮을 받들어 仙母로 삼았다 하므로, 그가 윤궁과 포사에서 길례를 올린 시점은 그 이후 어느 때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화랑세기』가 말하는 포석사는 그 창건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나, 진흥왕 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화랑세기』 출현 이전에는 포석사, 즉, 포석

9) 김태식, 앞의 책, 2002 47쪽.

정은 정확한 창건 시점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등장하는 시점이 신라 멸망기인 까닭에 막연히 이 무렵이었을 것이라는 짐작만이 가능했을 뿐이다. 이에 더불어 1999년 포석정 인근에 그 모형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립경주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砲石’이라는 銘文 기와가 발견됨으로써 창건시점에 대한 논란이 잠시 인 적이 있다.¹⁰⁾ 그렇다면 『화랑세기』를 제외하고 포석사가 창건된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삼국사기』 진흥왕본기 27년(566) 2월조에 이르기를 “祇園寺와 實際寺 두 절이 이루어졌다. 왕자 銅輪을 왕태자로 삼았다”고 했다. 두 절이 완공된 일과 동륜의 태자 책봉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모를 언급이다. 이 두 사찰에 대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譯註 三國史記』(1997)는 굳이 기원사 한 곳만을 골라내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다.

인도 摩揭陀國의 祇陀太子가 소유한 동산 祇園이었는데, 須達長者가 석가모니를 위하여 이 동산을 사서 절을 지어 祇園精舍라 하였다. 신라의 기원사는 인도의 기원정사로부터 그 이름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절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당나라에서 구법하고 돌아온 順憬이 한 때 이 절에 머문 적이 있었다.(본서 권47, 열전 裂起傳)¹¹⁾

이에 『삼국사기』 裂起傳을 보면, 김유신 在世 時에는 유신을 수행해 전장을 누빈 裂起가 유신이 죽고 유신의 아들 三光이 집정하던 시기 郡太守를 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가 이 문제를 상담한 사람으로 기원사 僧 順憬이 보이니, 이런 청탁에 순경이 삼광을 설득해 마침내 三年山郡 태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순경에 대해 주석은 唐에서 求法하고 돌아왔다 했는데, 정작 열기전에는 순경에 대한 그 어떠한 주석도 보이지 않는다.

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포석정모형전시관부지』, 2001.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上)』, 1997, 119쪽.

나아가 주석은 기원사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처리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신라말기 在唐 유학의 경험이 있는 崔匡裕가 남긴 시 중에 「鮑石亭 奏樂詞」가 있으니¹²⁾ 이를 통해 우리는 『역주 삼국사기』가 未詳으로 처리한 기원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기원사 실제사 두 사찰 동서로 있으니
 소나무 잣나무 서로 기대고 동굴엔 여라 무성하네
 머리 돌려 한 번 보니 塢花 만발하고
 실안개 가벼운 구름 나란히 몽롱하네

祇園實際已兮二寺東西
 松栢相倚兮蘿洞中
 回首一望兮塢花滿
 細霧輕雲兮竝朦朧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최광유가 당시 포석정 일대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에서 분명 최광유는 기원사와 실제사 두 사찰이 東西로 있다고 했다. 이로써 볼 때 기원사와 실제사는 그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포석정을 중심으로, 혹은 포석정 주변 어딘가에 그 동쪽과 서쪽에 각각 포진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주변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성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포석정을 중심으로 기원사와 실제사가 포진한 남산 기슭 일대가 모종의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암시하는 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이 시를 심상치 않게 여기는 까닭은 신라 당대 포석정 일대에 대한 풍경의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언급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 詩作을 통해 포석정의 창건 시점과 그 성격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창건 시점과 관련해 기원사와 실제사 두 사

12) 『교감표제유주동국사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31쪽.

찰이 그 동서쪽(혹은 주변부 동서쪽)에 포진했다 함은 말할 것도 없이 두 사찰이 창건 시점에 이미 그 위치를 포석정을 고려했다는 언급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애초에 포석정이 있었고, 그 포석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기원사와 실제사 두 사찰을 창건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에 우리는 기원사와 실제사가 창건된 시점이 진흥왕 27년(566) 2월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포석정은 이미 이 이전에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포석정에 대한 성격 구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진흥왕이 두 사찰을 창건할 무렵 불교 사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기능이 修道 도량이자 追福 시설이었다는 점이다. 불교 사원은 그 근본이 석가모니 부처에 대한 추복 시절이라는 점을 벗어날 수 없다. 진흥왕 시대에는 그 중에서도 塔 신앙 중심이었다. 그것은 이보다 약 1세기를 내려온 선덕왕 시대에도 황룡사 구층목탑 창건이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진흥왕 시대에 불교신앙에서도 탑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불교 사원은 중국사의 변천을 고려할 때 7세기 무렵을 지나면서 탑 중심에서 탈피해 점차 佛堂 중심으로 변모해간다. 황룡사와 관련해 진흥왕 시대에 丈六尊像을 안치했다는 기록에서는 그런 경향으로의 進化 방향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불교신앙에서 탑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에 대해 필자는 이미 상세하게 고찰을 가한 적이 있으므로,¹³⁾ 그것을 생략하지만, 요컨대 탑은 석가모니 부처의 무덤으로 생각되었다. 마찬가지로 경배 대상으로서의 佛像 또한 석가모니 부처의 現身으로 간주된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간단히 말해 탑이건 불상이건 석가모니 자체였다. 이런 주요 경배 공간이 들어선 불교 가람이 넓은 의미에서 禮制 건축의 일종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13) 김태식,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舍利函 銘文을 중심으로-」 『문화사학』28, 2007.

기원사와 실제사라는 예제 건축물이 하필 들어선 장소가 포석정 근처인지에 대한 탐구는 역으로 포석정의 기능 또한 같은 예제 건축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포석정이 포진한 남산 일대가 신라시대 예제 건축이 집중 포진한 구역이었다는 사실은 그 인근에 위치한 蘿井 또한 최근 발굴조사 결과 明堂, 혹은 그에 비견되는 神宮과 같은 국가제사 시설임이 확연히 구명되었다는 점을 대비할 때 분명하다고 필자는 본다.

V. “百年大阜의 단비”

1989년 이른바 발췌본 공개를 기점으로 삼으면 『화랑세기』는 올해로 21년 동안 진위논쟁의 중심에 섰다. 그 논쟁사에는 굴곡이 있었으니, 지금을 기준으로 몇 년 동안 동향을 보건대 근래 이것이 僞書임을 다시금 주장하는 論者 두어 명이 출현해 그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¹⁴⁾ 그 중 어떤 논자가 보인 행태는 무척이나 시사적이다. 이 논자는 필자가 알기로는 『화랑세기』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논급도 없었다. 그러던 그가 어찌하여 ‘느닷없이’ 『화랑세기』 논쟁에 뛰어들어 그것이 위서라고 맹렬히 반박하게 되었던가? 그 자신의 증언을 직접 들어본다.

필자는 제22회 신라문화학술회의 『신라 國歌의 기원과 전통』(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주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2002.11.7)에서 「신라 和自會議에 관한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알천은 진흥왕의 동생인 속흘종의 손자뻘에 해당하는 존재임을 추정하였는데, 당시 학술회의에 참여한 이종욱 교수는 소위 발췌본 『화랑세기』의 頭註로 적힌 계보도에 ‘속흘종

14) 이재범과 박남수가 대표적이다.

-알천'의 계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발표논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花郎世紀 문제에 대한 후고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부담을 느껴왔다.¹⁵⁾

이런 언급만으로는 왜 이 논자가 『화랑세기』 위서론을 주창한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 이 논자는 신라 화백회의에 대한 글을 발표하면서, 그 와중에 關川이 叔訖宗의 손자라고 추정한 것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화랑세기』 진본론자인 이종욱의 표적이 되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당시 이종욱의 토론 혹은 질의 내용을 문제의 학술대회장에 참관한 필자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당신이 주장하는 계보도가 『화랑세기』에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다. 첫째, “당신은 『화랑세기』를 보고서 이렇게 추정했을 것이다.” 둘째,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화랑세기』는 진본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질의는 『화랑세기』에 대한 一言半句 언급이 없던 이 논자를 당혹스럽게 했을 수 있다. 자칫 『화랑세기』를 표절한 것으로 보일 테니 말이다. “스스로 많은 부담을 느껴왔다”는 표현에는 이 논자의 심리는 겉으로만 보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는 부담과 더불어 『화랑세기』를 가짜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망도 어느 정도는 내재되었을 수도 있다고 필자는 본다. 그의 속흥종-알천의 계보에 대한 논증은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의 의도와는 달리 자칫 『화랑세기』를 진본으로 간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논자는 『화랑세기』 필사자로 지목되는 南堂 朴昌和의 원고문치에서 이른바 『花郎世紀 殘本』과 그에서 ‘鄉歌’ 一首를 발견했다고

15) 박남수, 「신발견 朴昌和의 花郎世紀 殘本과 ‘鄉歌’ 一首」 『東國史學』43, 2007.

흥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화랑세기』가 가짜임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긴 논문을 한참이나 읽어도 『화랑세기』가 왜 가짜여야 하는지 필자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가 발견했다고 호언한 『화랑세기 잔본』이란 것과 향가란 것도 이미 필자가 몸담았던 ‘역사21’ 사이트에서 한동안 논란을 벌였던 것이고,¹⁶⁾ 그나마 향가란 것도 이를 박창화의 향가 창작 능력을 말해주는 제1의 증좌로 삼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그리고 한 눈에 봐도 조선시대 吏讀를 사용한 흔적이 분명한 소위 이 ‘향가’는 그에 대비되어 『화랑세기』에 수록된 향가가 박창화의 창작물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려 그것이 신라시대 향가의 잔영임을 말해주는 일대 증좌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그가 말한 『화랑세기 잔본』이란 것도 그가 임의로 이런 제목을 붙여서 그렇지, 『화랑세기』와는 한창이나 격이 떨어지는 데다, 그 수 많은 등장인물이 한결같은 聯網을 형성하는 『화랑세기』에서는 도통 보이지 않은 계보간의 錯亂이 보인다는 점에서 『화랑세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같이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화랑세기』를 참조한 창작물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그러함에도 논자는 한발 더 나아가 박창화의 疆域 관련 논문 중 하나인 ‘李衛異域說’에 보이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서의 전승에 대한 박창화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18년에 걸친 기나긴 진위논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¹⁷⁾고 한다. 그가 인용한 대목에서 박창화는 “이 傳記를 記한 古記가 今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함으로”라고 했거니와, 이것이야말로 박창화가 『화랑세기』를 진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한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구절 첫 줄에는 당장 “우리나라 歷史는 『三國史記』

16) 이를 박남수는 역사21에서 발간한 웹진으로 보았지만 오류다. 역사21 사이트 자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17) 박남수 앞의 논문, 2007, 98쪽.

· 『高麗史』· 『李朝實錄』이다”는 말이 보이거니와, 그의 논리대로라면 박창화는 우리의 역사기록으로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본 셈이다.

“古記가 속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안하함”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역사기록이 태부족이라는 언설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항용 지금의 우리가 한국고대사를 논할 때 하는 말, 즉 “기록이라 해봐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밖에 더 있느냐”는 상투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언설과 직설을 혼동한 사례는 그와 더불어 근자에 『화랑세기』 위서론을 주장하는 또 다른 논자에게서도 발견되니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그 토론자로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再論을 略한다.¹⁸⁾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화랑세기』를 애써 가짜로 몰아가고자 했음이 명백한 논자도 있다. 필자는 2002년 초반 필자가 몸담은 언론매체를 통해 『화랑세기』 관련 특집을 기획하면서 그 중 하나로 2002년 1월 22일에는 그 13번째 연재물로 ‘金龍春=金龍樹=鼻荊郎?’이란 제하의 기사를 송고한 적이 있다. 이에서 필자는 이 논자가 그 전에 발표한 논문 ‘桃花女와 鼻荊郎 설화’¹⁹⁾를 평하면서 이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이 “실로 담대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써 당시 필자는 첫째, 용춘 혹은 용수를 한 사람으로 본 것은 물론 그가 바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鼻荊郎과 같은 인물로 보았고, 둘째 비형랑을 화랑으로 간주했으며, 셋째 진지왕은 축출된 뒤 곧바로 죽지 않고 3년 정도 더 살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요지의 기사는 2002년 5월에 출간한 필자의 단행본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에도 좀 더 자세히 수록됐다.

하지만 근거야 어떠한건 그의 이런 주장에 따른다면 『화랑세기』는 진

18) 이재범, 「필자본 『花郎世紀』 에원공조에 대한 검토」(신라사학회 2010.8.21 발표문)에 대한 김태식의 토론문 참조.

19) 이 논문은 『한국사론』41·42합집에 실렸으며, 같은 글은 몇 달 뒤인 2000년 4월에 발간된 그의 저작 『천년의 왕국 신라』(창작과비평사)에는 각주만 생략된 채 전재됐다.

본일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을 당시 필자의 기사에서는 “이름이 鼻荊郎이든 龍春이든 龍樹든 상관없이 이들이 화랑이었으며 진지왕이 한동안 유폐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화랑세기』 필사본에만 나온다. 『삼국사기』·『삼국유사』 어디를 뒤져봐도 김용춘(김용수) 혹은 비형랑이 화랑이라는 기록은 없다. 과정이야 어떻든 김 교수가 도달한 결론은 『화랑세기』와 일맥 상통한다”고 표현했다. 그러함에도 이 논자는 2000년 2월 『화랑세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필자의 전화 질의에 『화랑세기』는 가짜이며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후 필자는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가 못내 궁금했다. 분명히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2003년에 접어들어 관련 논문 3편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장면을 목도했다.²⁰⁾ 이들 글을 통해 그가 비교적 새롭게 제출한 견해라고 한다면, 1989년에 공개된 이른바 ‘拔萃本’과 1996년에 모습을 드러낸 이른바 ‘母本’의 관계를 도치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노태돈²¹⁾ 이래 두 『화랑세기』 寫本에 대해서는 후자가 먼저 제작된 다음 전자가 나왔다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 논문에 대해 어떤 평자는 그 글의 성격상 파격적으로, 그리고 매우 장황하게 그의 주장 요지를 소개하면서 “아울러 필사본 『화랑세기』를 신빙하는 입장에서는 ... 합리적인 반론이 그리 간단치 않을 듯하다”²²⁾는 평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논자의 주장이나 평자의 말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서로에 대한 발췌와 원본 격으로 보이는 두 판본에 대한 선후

20) 김기홍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기홍, 「화랑 설치에 관한 諸 史書의 기사 검토-김대문 『花郎世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歷史教育』88, 2003; 「花郎世紀 두 사본의 성격」, 『歷史學報』178, 2003; 「필사본 花郎世紀와 관련된 기초적 문제들」, 『建大史學』10, 2003.

21) 盧泰敦, 앞의 논문, 1995.

22) 임기환, 「한국 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 2002-2003(고대편)」, 『역사학보』183, 2004, 18쪽.

감별 능력에서조차 심대한 장애가 있음이 드러났는데 무엇을 더 가타부타 하리오. 두어 가지 사례를 근거로 일반론으로 확대하기에는 주저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제기된 『화랑세기』 위서론은 그것이 위서여야 한다는 당위론이 벗어낸 욕망이라고 필자는 본다.

지금까지 『화랑세기』가 위서임을 주장하는 글과 근거는 부지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과연 그것이 위서임을 입증했는가? 僞書論,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좌절됐다. 그런 모든 노력은 水泡로 돌아갔다.

그것이 위서임을 주장한 어떤 논자는 “만약 이 책이 진본이라면, 그것은 사료 부족에 허덕이는 고대사 연구에 百年大旱에 단비와 같은 것이며, 필사본 『화랑세기』의 출현은 그야말로 ‘世紀의 발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³⁾고 했다. 그렇다. 그의 말마따나 『화랑세기』는 百年大旱의 단비이며 그것의 출현이야말로 세기의 발견이다.

23) 盧泰敦, 앞의 논문, 1995, 331쪽.

【참고문헌】

1. 저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교감표제음주동국사략』, 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譯註 三國史記3 주석편(上)』, 1997.
이종욱 역주해(원문교감), 『화랑세기』, 소나무, 1999.
테루오카 야스타카 저, 정형 역, 『일본인의 사랑과 성』, 소화, 200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포석정모형전시관부지』, 2001.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2. 연구 논문

- 盧泰敦, 「筆寫本 花郎世紀의 史料的 價値」 『歷史學報』147, 1995.
이강래, 「삼국사기와 필사본 화랑세기」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6.
이종욱, 「화랑세기를 통하여 본 신라 화랑도의 기원과 설치」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6.
권덕영, 「『화랑세기』 진위논쟁 10년」 『한국학보』99, 2000.
김기흥 「화랑 설치에 관한 諸 史書의 기사 검토-김대문 『花郎世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歷史教育』88, 2003.
김기흥, 「花郎世紀 두 사본의 성격」 『歷史學報』178, 2003.
김기흥, 「필사본 花郎世紀와 관련된 기초적 문제들」 『建大史學』10, 2003.
임기환, 「한국 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 2002-2003(고대편)」 『역사학보』183, 2004.
김태식,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 - 舍利函 銘文을 중심으로 -」 『문화사학』28, 2007.
박남수, 「신발견 朴昌和의 花郎世紀 殘本과 ‘鄉歌’ 一首」 『東國史學』43, 2007.
이재범 「필사본 『花郎世紀』 예원공조에 대한 검토」(신라사학회 2010.8.21 발표문)

Abstract

Hwarangsegi(『花郎世紀』),
the Discovery of the Century

Kim, Tae-Shik

According to the record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wooden stupa of Hwangryongsa Temple(皇龍寺) made in 872 A.D., it was Yongsu(龍樹) who supervised the first construction of the stupa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deok. Some of historians maintain the record produces evidence that the handwritten Hwaransegi(『花郎世紀』) be a forgery by someone, not a copy of the original text by Kim Deamun(金大問), who was a politician and famous writer during the middle age of Silla. Hwaransegi has been believed to disappear long time ago, but its alleged manuscripts made an dramatic appearance in 1989 and 1995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handwritten Hwaransegi, Yongsu, the supervisor of the construction of the Hwangryongsa stupa has been dead in 645~646, when the stupa was first erected. Therefore the handwritten Hwaransegi must be forged by someone, especially Park Changhwa, the ‘auther’ of the manuscript.

But such a judgment has many problems from the start. Above all,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prerequisite that the record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stupa has nothing but historical facts and truths. However, making

careful surveys of the record, we can find a considerable setback in it. The record calls the supervisor of the reconstruction ‘Yongsu’, which is his ante mortem name. And almost all of students of Silla history and even Samgusagi and Samgukyusa, ‘Yongsu’ is the father of King Taejongmuyeol. According to Samgusagi and Samgukyusa, ‘Yongsu’ was given the new posthumous name of ‘the Great King of Munheong’(文興大王), followed by the coronation of his son. So later on the people of Silla could not call him as Yongsu, but ‘the Great King of Munheong’.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cord on the stupa called him as Yongsu makes clear that he cannot be the Great King of Munheong', but someone else. In other words, Yongsu has never been ‘the Great King of Munheong’. So who is ‘the Great King of Munheong’? He is Yonchun(龍春), Yongsu’s younger brother. Until the handwritten Hwaransegi reappeared, nobody had doubted that Yonchun is Yongsu, Yongsu is Yonchun, that is, Yonchun is another name of Yongsu. However, the new-born Hwaransegi shows that those two names are not referred to one person, but to two brothers. These findings prove the manuscripts of Hwaransegi is based on the original text of Hwaransegi written by Kim Deamun.

We can prove it as well on Poseokjeong, the Pavilion of Stone Abalone near Namsan in Gyeongju, Gyeongsangbuk-do South Korea. It was no doubt it had been built in the Silla period, But we could not the accurate time of its building, for there is not any document on it. Meanwhile, we have vaguely believed that it was built around the later Silla period and mainly used as the place for some kind of festival or drinking party. But the handwritten Hwaransegi shows that it had been built no later than the 6th century, and the most important function was as the royal wedding hall as

well as the shrine for Hwarang. It makes us at last understand all the records surrounding Poseokjeong. For example, according to Samgukyusa, Hyojongrang, the boss of Hwarang group during the later Silla Period, led his subordinates to Poseokjeong to do something one day. Until the reappearance of Hwaransegi, we could not have any slight idea of why he was there and what he was doing there. But the questions were finally solved. Hyojongrang as the boss of Hwarang go to the shrine to do a certain divine rite related to Hwarang.

Any attempt to prove the handwritten Hwaransegi is forged by someone in modern times has turned in vain. A historian who has such a thought on it said if the handwritten text is a copy of Kim Daemun's it is welcome rain after a hundred years of no rain and the discovery of the century. Yes it is welcome rain after a hundred years of no rain as well as the discovery of the century!

Key Words : Hwaransegi, Hwangryongsa Pagoda Chajubongji, Ryongsu, Ryongchun, Poseokjeong

논문 투고일 : 2010. 12. 5
게재 확정일 : 2010. 12. 28

심사 완료일 : 2010. 12. 10